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

최미숙¹, 동화진^{2*}

¹예수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²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박사과정

A Study on Changes of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by Each Period of Clinical Practicum of Nursing Students

Mi-Suk Choi¹, Hwa-Jin Dong^{2*}

¹College of Nursing, Jesus University professor,

²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h.D. student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임상실습 시기별로 조사하여 시기적 특성에 따른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종단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J도 소재 간호대학생 94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대체적으로 임상실습 전이 가장 낮고 시간의 경과 및 임상실습경험 정도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양상이었으나, 2학기 첫 실습 후에는 모든 항목에서 1학기 첫 실습 후보다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임상실습 시간 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차이는 1학기 첫 실습 후는 임상실습 전보다 높았고, 학년 말 실습 후는 2학기 첫 실습 후보다 높았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의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임상실습, 시기, 변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longitudinal study was to investigate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each period of clinical practicum and discover the change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periods. The data was collected for 94 nursing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located in J-do from Mar. 9 to Dec. 16 2016 for 4 times in total. For data analysis, th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were used.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by each period of clinical practicum was lowest before clinical practicum in general but gradually increased depending on lapse of time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um. However, it decreased in all items after having first clinical practicum in the 2nd semester, compared to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the 1st semester.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between clinical practicum periods was higher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um in the 1st semester and after clinical practicum at the end of school year, compared to before clinical practicum and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um in the 2nd semester respective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it's necessary to have efficient and systematic clinical practicum education strateg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eriods in clinical practicum in order to improve the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ore basic nursing skill, Confidence, Clinical practicum, Period, Changes

*Corresponding Author : Hwa-Jin Dong(worldvision5@naver.com)

Received August 13, 2018

Revised September 3,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교육 현장은 간호대학생이 간호 핵심역량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학습목표 성취에 있어 임상실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1,2].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사회화를 배우고, 비판적 사고와 시간관리기술 등을 발전시키며 간호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신감을 함양하게 된다[3].

이처럼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2-24학점에 달하는 총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4]. 임상실습교육과정 운영체제는 학기 중 임상실습을 맞추기 위해 8주간 두 배수 이론수업을 하고 남은 8주간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블럭제 방식이나 이론과 실습을 격주나 2주 간격 등으로 병행하는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5].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평균 2년의 기간 동안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임상현장은 환자의 권리의식 강화, 질적 간호요구 증가, 간호 인력의 부족과 학생수 증가 등의 문제로 대부분 관찰이나 설명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수행의 기회는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6,7]. 또한 현행 간호사 국가고시는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식 중심의 지필고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간호수행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8].

이로 말미암아 신규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환자 간호에 간호사의 실무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점차 결여된다[9,10]. 또한 간호대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졸업할 경우 병원에서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다시 교육을 시켜야하므로 이에 대한 인력 및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1,12].

이에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사의 직무수행 중 빈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간호사 양성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핵심기본간호술 20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함으로써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4].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학과의 임상실습교육을

개선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현장에 대한 적응력 및 간호술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국내외 간호전문직에서 요구되는 간호핵심역량을 보장하여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3].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고,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개개인의 교육-학습과정을 강화시켜준다[13].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은 미래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여 졸업 후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핵심기본간호술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대한 연구[14,15],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연구[16], 핵심기본간호술 교육방법에 따른 연구[17]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Dillon(2002)은 실습경험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18], 김순옥과 강복희(2016)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학습경험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상승함을 밝힌 바 있다[19].

그러나 지금까지 동일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임상실습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양상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한 중단연구는 전무하였다.

과학적 연구의 근본적인 힘은 관심의 초점이 되는 현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다[20,21]. 간호 분야에서는 시간의 변화와 관련된 현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동안에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21].

이에 본 연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중심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과 임상실습이 진행되는 1년 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시기별로 3학년 간호대학생의 수행자신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시기와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를 파악하여 임상실습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체계적 재구성 전략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전략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시기별 일반적 특성의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기 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총 4회(임상실습 전, 1학기 첫 실습 후, 2학기 첫 실습 후, 학년 말 실습 후)에 걸쳐 조사한 종단연구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 소재 일 간호대학의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이다. 표본크기는 G*Power 3.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r) 0.3,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수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8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설문지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간호학과 3학년 전체 116명에게 배부하였다. 올바르게 응답한 대상자는 임상실습 전 조사 시 104명이었으며,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학기 첫 실습 후는 98명이었고, 2학기 첫 실습 후는 96명, 학년 말 실습 후는 94명이었다. 대상자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9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설문조사는 대상자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학생들의 수업이나 학점과 연관성이 없는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1인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훈련한 후 진행하도록 하였고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설명한 내용으로는 연구 참여가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참여자는 교수로 인해 학생의 이론과 실습학점과 관련된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하여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원칙

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동의내용에는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가 종료된 후 자료는 지정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보관하며, 연구완료 3년이 지난 후 설문지는 분쇄기를 사용하여 파쇄할 것이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과 자료는 영구 삭제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모든 절차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진행중에 언제든지 거부하거나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이 모든 것에 각 회 차별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수행자신감은 어떤 일을 뜻대로 이루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로[22] 본 연구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의 각 간호행위에 대한 수행자신감의 수준을 의미하며,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항목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개 항목 중 교과과정에 따라 2학년 말에 구조화된 객관적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이하 OSCE)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한 8개 항목(활력징후, 경구투약, 근육주사, 피하주사, 정맥수액주입, 단순도뇨, 배출관장, 간헐적위관영양)을 선정하였다. 문항은 기본간호학 교수 및 현장 실무자 1인이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을 검토하여 문항 중 중요표시(*)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총 66문항(활력징후 15문항, 경구투약 6문항, 근육주사 7문항, 피하주사 8문항, 정맥수액주입 10문항, 단순도뇨 8문항, 배출관장 5문항, 간헐적위관영양 7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척도는 4점 likert scale로 "아주 자신 있다" 4점에서 "아주 자신 없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5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9일(임상실습 전)부터 12월 16일(학년 말 실습 후)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절차는 일 대학의 3학년 정규교육과정 및 임상실습 전체 일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는 4주 간격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A반:4주 이론 후 4주 실습, B반:4주 실습 후 4주 이론)을 받는 학생으로 실습장소는 각 회 차별로 동일하였다. 첫 번째 자료 수집은 임상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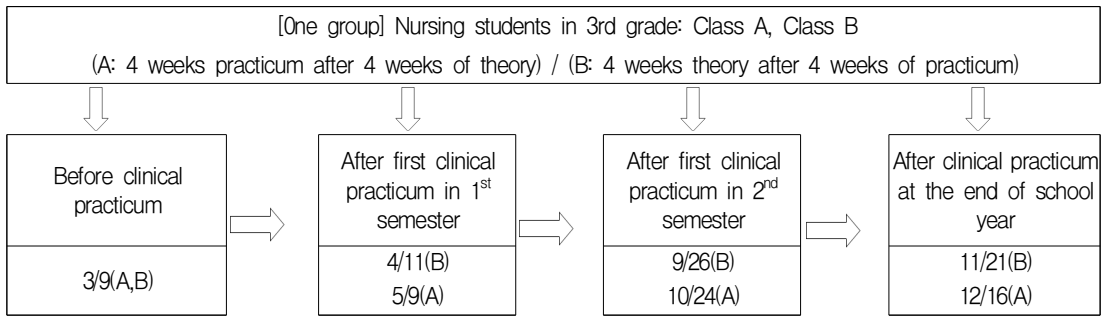


Fig. 1. Data collection method

전인 3월 9일(A반,B반), 두 번째 자료 수집은 1학기 첫 실습 후인 4월 11일(B반)과 5월 9일(A반), 세 번째 자료 수집은 2학기 첫 실습 후인 9월 26일(B반)과 10월 24일(A반), 네 번째 자료 수집은 학년 말 실습 후인 11월 21일(B반)과 12월 16일(A반) 이었다(Fig. 1참조). 각 회 차별 설문지 조사 방법은 처음 조사 시,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박스 속에 코팅처리한 번호표를 넣고 무작위로 한 개씩 뽑도록 하였다. 뽑은 번호숫자를 설문지 위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이 번호표는 2, 3 회까지 이어짐을 설명하면서 가지고 있는 개인용 휴대폰에 사진으로 간직하도록 하였으며 서로 교환하거나 본인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남기지 않도록 설명하였고, 매번 일련번호로 처리하여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지는 4회 동안 동일한 것을 적용하였으며, 마지막 조사 시에는 대상자가 임상실습 시 가장 힘들었던 것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2.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시기별 일반적 특성의 변화양상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분석했다.
-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의 변화양상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임상실습 시기 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시기별 일반적 특성의 변화양상

3.1.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 한 것은 ‘환자반응에 대한 문제 해결’ 23명(24.5%), ‘안전사고 및 감염관리’ 23명(24.5%), ‘간호과정’ 18명(19.1%), ‘환자 및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16명(17.0%), ‘핵심기본간호술’ 14명(14.9%)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4)

Variables	Categories	n(%)
The most difficult thing in clinical practicum	Problem solving in patient response	23(24.5%)
	Safety incident and infection control	23(24.5%)
	Nursing process	18(19.1%)
	Communicating with patients and medical staff	16(17.0%)
	Core basic nursing skills	14(14.9%)

3.1.2 임상실습 시기별 일반적 특성의 변화양상

임상실습 시기별로 일반적 특성의 변화양상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4점 척도)는 학년 말 실습 후(3.24±.45), 1학기 첫 실습 후(3.11±.41), 임상실습 전(3.09±.38), 2학기 첫 실습 후(3.05±.3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직에 대한 태도(4점 척도)는 학년 말 실습 후(3.22±.46), 1학기 첫 실습 후(3.17±.50), 임상실습 전(3.13±.49), 2학기 첫 실습 후(3.09±.50) 순이었다. 상황 및 환경변화 적응(4점 척도)은 임상실습 전(3.08±.45), 2학기 첫 실습 후(3.09±.41), 1학기 첫 실습 후(3.09±.49), 학년 말 실습 후(3.23±.47) 순이었으며, 임상실습에대한 만족도(4점 척도)는 학년 말 실습 후(3.07±.55), 2학기 첫 실습 후(2.98±.53), 1학기 첫 실습 후(2.92±.53) 순이었다.

Table 2. Changes of general characteristic by each period of clinical practicum (N=94)

Variables	Mean±SD			
	Before clinical practicum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1 st semester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2 nd semester	After clinical practicum at the end of school year
satisfaction with nursing	3.09±.38	3.11±.41	3.05±.37	3.24±.45
Attitudes toward nursing	3.13±.49	3.17±.50	3.09±.50	3.22±.46
Adaptation to situational and environmental changes	3.08±.45	3.09±.49	3.09±.41	3.23±.47
satisfaction with practicum	-	2.92±.53	2.98±.53	3.07±.55

3.2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평균은 학년 말 실습 후(3.55±.36), 1학기 첫 실습 후(3.53±.38), 2학기 첫 실습 후(3.46±.36), 임상실습 전(3.38±.37) 순이었다. 각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활력징후는 1학기 첫 실습 후(3.72±.32)가 가장 높고, 2학기 첫 실습 후(3.69±.36)와 학

년 말 실습 후(3.69±.36)는 같았고, 임상실습 전(3.41±.40)이 가장 낮았다. 경구투약은 1학기 첫 실습 후(3.74±.38), 학년말 실습 후(3.74±.36), 2학기 첫 실습 후(3.67±.39), 임상실습 전(3.66±.43) 순이었다. 근육주사는 학년 말 실습 후(3.52±.42), 1학기 첫 실습 후(3.47±.45), 2학기 첫 실습 후(3.44±.42), 임상실습 전(3.26±.42) 순이었다. 피하주사는 학년 말 실습 후(3.51±.38), 1학기 첫 실습 후(3.45±.45), 2학기 첫 실습 후(3.37±.44), 임상실습 전(3.20±.45) 순이었다. 정맥수액주입은 학년 말 실습 후(3.48±.46), 1학기 첫

Table 3. Changes of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by each period of clinical practicum (N=94)

Variables	Mean±SD			
	Before clinical practicum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1 st semester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2 nd semester	After clinical practicum at the end of school year
Vital sign(V/S)	3.41±.40	3.72±.32	3.69±.36	3.69±.36
PO medication(PO)	3.66±.43	3.74±.38	3.67±.39	3.74±.36
Intramuscular injection(IM)	3.26±.42	3.47±.45	3.44±.42	3.52±.42
Subcutaneous injection(SC)	3.20±.45	3.45±.45	3.37±.44	3.51±.38
Intravenous fluid injection(IV)	3.22±.45	3.47±.49	3.37±.46	3.48±.46
Nelaton catheterization	3.41±.46	3.52±.51	3.44±.45	3.57±.47
Enema	3.41±.48	3.38±.51	3.32±.47	3.35±.55
Levin-tube feeding	3.43±.48	3.49±.53	3.40±.52	3.57±.46
Mean	3.38±.37	3.53±.38	3.46±.36	3.55±.36

Table 4. Differences of confidence in core clinical nursing skill between clinical practicum (N=94)

Variables	Mean±SD			t	p
	Pre-test	Post-test	Pre-post differences		
Before clinical practicum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1 st semester	3.38±.37	3.53±.38	0.15±.47	-3.138	.002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1 st semester -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2 nd semester	3.53±.38	3.46±.36	0.06±.04	1.519	.132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2 nd semester - After clinical practicum at the end of school year practicum	3.46±.36	3.55±.36	0.09±.39	-2.260	.026

실습 후(3.47±.49), 2학기 첫 실습 후(3.37±.46), 임상실습 전(3.22±.45) 순이었다. 단순도뇨는 학년 말 실습 후(3.57±.47), 1학기 첫 실습 후(3.52±.51), 2학기 첫 실습 후(3.44±.45), 임상실습 전(3.41±.46) 순이었다. 배출관장은 임상실습 전(3.41±.48), 1학기 첫 실습 후(3.38±.51), 학년 말 실습 후(3.35±.55), 2학기 첫 실습 후(3.38±.51) 순이었다. 간혈적위관영양은 학년 말 실습 후(3.57±.46), 1학기 첫 실습 후(3.49±.53), 임상실습 전(3.43±.48), 2학기 첫 실습 후(3.40±.52) 순이었다.

3.3 임상실습 시기 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

임상실습 시기 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1학기 첫 실습 후(3.53±.38)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임상실습 전(3.38±.37)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t=-1.338, p<.01$), 학년 말 실습 후(3.55±.36)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도 2학기 첫 실습 후(3.46±.3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2.260, p<.05$). 반면, 2학기 첫 실습 후(3.46±.36)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1학기 첫 실습 후(3.53±.38)보다 하락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1.519, p<.132$).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 시기별로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임상실습 교육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시기별 일반적 특성의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 중 간호대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임상실습 시 가장 힘들었던 것의 빈도를 파악한 결과 ‘환자반응에 대한 문제해결능력’(24.5%), ‘안전사고 및 감염관리’(24.5%), ‘간호과정’(19.1%), ‘환자 및 의료진과의 의사소통’(17.0%), ‘핵심기본간호술’(14.9%)순으로 나타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어려움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이 2학년 말에 OSCE프로그램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 8개 항목에 대한 테스트를 마쳐 자신감이 향상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핵심기본간호술은 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다른 항목에 비해 반복학습을 통한 습득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 업무 중 빈도와 중요도가 가장 높은 간호술로 간호대학생의 교육 요구도가 높고[23], 간호교육과정 중 필수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역량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14].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만족도, 간호직 태도, 상황 및 환경변화 적응의 변화양상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학기 첫 실습 후에는 1학기 첫 실습 후보다 오히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2학기 첫 실습이 여름방학 후에 이루어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학생들은 장기간의 휴식 후에 실습에 복귀할 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성취동기를 증진시켜 핵심기본간호술을 잘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을 키워주며[24], 임상수행능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25]. 또한 간호직 태도가 긍정적인 학생일수록 기대한 결과에 대한 성공 신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따라서 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름방학 후에 실시되는 2학기 첫 이상 실습의 경우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임상실습 만족도의 변화양상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여 학년 말 실습 후의 실습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1학기 첫 실습에서는 낮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아 만족감이 낮았을 것으로 보이며[26], 학년 말 실습 후에는 병원 환경에 적응이 되고 점차 이론과 실습이 통합되면서 만족감이 상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학년 말 실습 후(3.55±.36), 1학기 첫 실습 후(3.53±.38), 2학기 첫 실습 후(3.46±.36) 임상실습 전(3.38±.37) 순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선행연구의 3학년 2.86±.46점과 4학년 2.97±.43점[27] 및 4학년을 대상으로 한 2.96±.44점[14]보다 모든 측정 시점에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3학년이지만 임상실습 전 2학년 말에 OSCE 프로그램을 통해 테스트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상실습 전이 가장 낮고 학년 말 실습 후가 가장 높았다. 임상실습 전이 가장 낮은 것은 첫 임상실습을 앞두고 실수에 대

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며 [28], 학년 말 실습 후가 가장 높은 것은 실습이 진행될수록 임상현장에서의 학습경험과 간호학적 이론의 적용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학습경험정도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29]. 그러나 방학 후에 이루어진 2학기 첫 실습 후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1학기 첫 실습 후 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나 경험정도에 의해 상승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내적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항목별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 양상을 보면, 활력징후와 경구투약은 교내 실습경험이 전부였던 임상실습 전이 가장 낮았고,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에 높은 폭으로 상승하여 1학기 첫 실습 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활력징후와 경구투약은 1학기 첫 실습 후 조사한 8개의 핵심기본간호술 항목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높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활력징후와 경구투약이 다른 항목과 달리 1학기 첫 실습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두 항목은 임상에서 간호학생의 수행빈도가 높은 술기항목으로[15] 교내 실습을 통해 배운 것을 임상에서 실제 대상자에게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술기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간호수행자신감 향상을 위해서는 환자간호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근육주사, 피하주사, 정맥수액주입, 단순도뇨에 대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임상실습 전이 가장 낮고, 학기 말 실습 후가 가장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실습항목 특성상 수행의 기회가 많지 않으나 임상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술기항목으로[15] 시간이 흐를수록 관찰의 기회가 많아져 자신감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 항목도 방학 후인 2학기 첫 실습 후에는 1학기 첫 실습 후 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 방학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배출관장은 임상실습 전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학기 첫 실습 후, 학년 말 실습 후, 2학기 첫 실습 후 순이었다. 임상실습 전에는 8개의 핵심기본간호술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은 자신감을 보였으나, 다른 항목과 달리 임상실습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자신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임상에서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현희(201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간호술은

수혈과 함께 관장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6], 한애경(2014)은 임상실습현장에서 단지 7.8%의 학생만이 관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15]. 즉, 배출관장은 임상실습에서 경험의 기회가 많지 않으며,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임상현장에서의 경험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간헐적위관영양은 학년 말 실습 후가 가장 높고, 1학기 첫 실습 후, 임상실습 전, 2학기 첫 실습 후 순이었다. 간헐적위관영양은 임상실습 전에도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수행자신감을 보였던 항목으로 3학년 실습을 마치며 더욱 자신감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조미혜(2007)의 연구에서 간헐적 위관영양은 68.8%가 임상실습을 통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한애경(2014)의 연구에서도 44.4%가 임상현장에서 간헐적 위관영양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15]. 즉, 학년 말 실습 후 간호수행자신감이 상승한 것은 임상실습에서의 경험빈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학기 첫 실습 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방학으로 인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셋째, 임상실습 시기 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1학기 첫 실습 후에는 임상실습 전보다 0.15±.47점 향상되었고, 학년 말 실습 후에는 2학기 첫 실습 후보다 0.09±.39점 향상되었다. 그러나 2학기 첫 실습 후에는 1학기 첫 실습 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0.06±.04점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1학기 첫 실습 후와 학년 말 실습 후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그 전 단계 보다 향상된 것은 학습의 경험이 증가할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27]. 특히 1학기 첫 실습 후 수행자신감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실습 전에 실제 환자에게 적용해본 경험이 없던 간호학생이 1학기 첫 실습을 통해 여러 간호술기를 관찰하고 활력징후 등 수행 빈도가 높은 술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보며 간호술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임상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성공경험을 갖는 것이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학기 첫 실습 후에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간호수행자신감이 오히려 하락하였는데 이는 방학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간호대학생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각된다. 즉, 방학 기간 동안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간호술기 기억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29], 안전하고 단순한 간호활동에 편중된 임상실습 환경 특성상 1학기 임상실습과 비교해 직접간호 수행이 늘지 않아 발전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학기 실습에 따른 임상 간호사들의 기대치 상승에 자신이 부응하지 못한 것 같은 심리적 부담감과 위축감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임상실습 전과 방학 후에 시작되는 2학기 첫 임상실습 전에 단계별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전략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대체적으로 임상실습 전이 가장 낮았으며 시간의 경과 및 임상실습 경험 정도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여름방학 후에 진행된 2학기 첫 실습 후에는 8개의 모든 항목에서 1학기 첫 실습 후보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임상실습 시기 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는 1학기 첫 실습 후는 임상실습 전보다 높고, 학년 말 실습 후는 2학기 첫 실습 후보다 향상되었으며, 2학기 첫 실습 후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1학기 첫 실습 후보다 오히려 하락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종단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기별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시기와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를 파악하여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 임상실습 교육전략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임상실습의 시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낮았던 임상실습 전과 2학기 첫 임상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각각 단계별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이 종단연구를 실시한 연구가 없어 비교논의에 한계에 있었고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주관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객관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G. Lee & Y. H. Shin. (2016). Effects of Self-directed Feedback Practice using Smartphone Videos on Basic Nursing Skills, 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2), 283-292.
<https://doi.org/10.4040/jkan.2016.46.2.283>
- [2] S. H. Kim, J. Y. Choi & Y. R. Kweon. (2017). Correlations among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Transfer Intention for Core Basic Nursing Skill in Nursing Students at a Nursing University. *Korea Contents Society*, 17(9), 661-671.
<http://doi.org/10.5392/JKCA2017.17.09.661>
- [3] H. Edwards, S. Smith, M. Courtney, K. Finlayson, & H. Chapman. (2004). The impact of clinical placement location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and preparedness for practice. *Nurse Education Today*, 24(4), 248-255.
<https://doi.org/10.1016/j.nedt.2004.01.003>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2017 first half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college manual*. Seoul: KABNE.
- [5] Y. S. Kim. (2016). Experiences on Block System Class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629-641.
<https://doi.org/10.5762/kais.2016.17.6.629>
- [6] H. H. Han. (2016). A Study of Convergence on

- Frequency of Performance, Self-Confidenc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of Core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355-362. <https://doi.org/10.14400/jdc.2016.14.8.355>
- [7] Y. I. Han. (2015). A Concept Analysis of Self Confidence in New Nurse.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7(2), 43-56.
- [8] N. Y. IM & J. H. Song. (2007). Delphi Study on Introduction of Practical Skills Test in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ing Licensur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4(2), 157-165.
- [9] K. A. Song. (2011). Current and Future Tasks of Basic Nursing Practice in Clinical Field. Seoul: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 [10] S. Kelly & N. Courts. (2006).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ew graduate nurse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7(5), 332-337. <https://doi.org/10.1016/j.nepr.2006.10.004>
- [11] I. S. Kwon & Y. M. Seo. (2012).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25-33.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1.025>
- [12] M. H. Cho & I. S. Kwon. (2007).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143-154.
- [13] S. N. Park & S. K. LEE. (2008). Factors Influencing Basic Nursing Skil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1), 6-13.
- [14] I. S. Lee & C. S. Park. (2015).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3), 297-307. <https://doi.org/10.7739/jkafn.2015.22.3.297>
- [15] A. K. Han, D. S. Cho & J. S. Won. (2014).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Practicu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2), 162-173. <https://doi.org/10.7739/jkafn.2014.21.2.162>
- [16] D. Choi. (2014).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n the Essential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184-191.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184>
- [17] Y. J. Chae & Y. M. Ha. (2016). Effectiveness of Education Program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using Recording Video with Smartphone and Formative Feedback.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6), 285-294. <https://doi.org/10.14400/jdc.2016.14.6.285>
- [18] P. M. Dillon. (2002). *The cognitive, competence and confidence development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over an academic year with clinical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Widener University, Pennsylvania.
- [19] S. O. Kim & B. H. Kang. (2016).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Learning Self-efficacy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their Self-confid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172-182. <https://doi.org/10.5762/kais.2016.17.8.172>
- [20] L. Jensen. (1990).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ARIMA model in time seri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3, 429-435.
- [21] H. S. Oh & Y. R. Kim. (1995). Methodology corner; The usefulness of time-series analysis in clinical research and its theoretical background. *Journal of nursing query*, 4(1), 211-225.
- [22] Y. H. Kim, S. Y. Hwang & A. Y. Lee. (2014).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37-46.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37>
- [23] J. H. Yang. (2012). Kore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3(3). <https://doi.org/10.5430/jnep.v3n3p128>
- [24] E. J. Shin. (2008).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3), 380-386.
- [25] H. J. Dong & M. S. Choi. (2016).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4), 373-382. <https://doi.org/10.7739/jkafn.2016.23.4.373>
- [26] H. J. Park & I. S. Jang.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14-23.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27] J. H. Yang, K. Y. Park, M. J. Kim & Y. Y. Yang. (2012). Factors Influencing the Confidence on Performa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11-2622.

- [28] K. Kleehammer, A. Hart & J. Keck. (1990).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anxiety-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9(4), 183-187.
- [29] K. A. Song, H. J. Park, H. A. Yeom, J. E. Lee, G. E. Joo & H. J. Kim. (2012).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New Educational Program, Introduction to Clinical Nursing, for Third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3), 322-333. <https://doi.org/10.7739/jkafn.2012.19.3.322>

최 미 숙(Choi, Mi Suk)

[정회원]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노인간호, 시뮬레이션

▪ E-Mail : updream@jesus.ac.kr

동 화 진(Dong, Hwa Jin)

[정회원]



- 2018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박사과정
- 2016년 9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정신건강간호, 근거중심실무

▪ E-Mail : worldvision5@naver.com